

슈쇼에(도깨비를 쫓는 법회 의식)

엔교지 절에서는 매년 1월 18일에 ‘오니오이에시키(도깨비를 쫓는 법회 의식)’라고도 불리는, 평화와 오곡의 풍작을 기원하는 제전이 열립니다. 이 특별한 날에는 붉은 도깨비와 푸른 도깨비 가면을 쓴 연기자가 행렬을 거느리고 사원 경내를 돌아다닙니다. 마니텐(摩尼殿)에서는 행사의 절정을 맞습니다. 붉은 도깨비는 와카텐이라고 하며 지상의 보물을 관장하는 신인 비사문천의 화신이고, 푸른 도깨비는 오토텐으로서 지혜의 신인 부동명왕의 화신입니다. 와카텐과 오토텐은 966년에 쇼샤잔산에서 쇼쿠 대사가 수행을 시작했을 때 스님을 도왔다고 전해집니다. 창건 이래 이 두 신은 엔교지 절의 수호신으로서 천 년이 넘도록 사원의 전승과 전통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서운 외관은 ‘악령을 쫓아내고 봄을 맞는다’라는, 고래로부터의 악령과의 관계성에 따른 것이며, 절 경내로부터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 두 신이 협력하여 움직입니다. 민속적인 풍습에 따르면 이 의식은 평화와 오곡의 풍작을 기원했던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의식 당일 오후 1시경, 붉은 도깨비와 푸른 도깨비는 눈을 가린 채 하쿠산곤젠 신사로 인도됩니다. 여기에서는 머귀나무로 만든 ‘도깨비의 젓가락’을 나누어줍니다. 종이 부적으로 감싼 젓가락은 마귀를 쫓는 힘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와카텐은 한 손에 종을 들고, 다른 손에는 소나무로 만든 긴 횃불을 들고 있습니다. 등에는 빛나는 나무 망치를 끈으로 묶어 짊어지고 있습니다. 오토텐은 검은 옷칠로 마무리한 폭이 넓은 나무 검을 쥐고 있습니다. 와카텐을 선두로 하여 두 도깨비는 길을 따라 힘차게 땅을 밟고 주문을 외면서 행렬을 이끌고 하산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오니오도리(귀신춤)’라고 불리며 토지신을 달래고 지진을 막는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마니텐에 도착하면 참배자들에게 더 많은 젓가락이 나누어지고 의식의 춤이 계속됩니다. 종을 울리며 와카텐이 정해진 경로에 따라 마니텐의 어두운 내부로 오토텐을 이끕니다. 두 신은 본존인 여의륜관음상 주위를 돌아다닙니다. 마니텐에서는 매년 이 특별한 날에만 여의륜관음상을 일반에 공개하기 때문에 참배자는 이 상들을 직접 보는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우메즈 집안이 매년 의식에 관련된 전통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초부터 우메즈 집안 사람들은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고, 안무 연습을 하고, 의식에 사용하는 옷, 도구, 가면을 수리하거나 교체합니다. 우메즈 집안 사람들은 매년 붉은 도깨비와 푸른 도깨비를 연기하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